

일진일퇴 사투...광주도시공사 짜릿한 개막전 승리

핸드볼코리아리그 피말린 공방 속 인천시청에 25-23 승 김지혜 후반 29분 20초 절묘한 백슛으로 승부 물줄기 갈라 강경민 12골 맹활약...특급 신인 송혜수 4골 '성공적 데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시즌 개막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6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인천시청전에서 25-23(12-11, 13-12)으로 승리했다. 올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잡은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정규리그 5위 인천을 접전 끝에 따돌리고 첫 승을 신고했다. 수훈감은 주포 강경민이었다. 강경민은 12골을 몰아넣으며 승리를 견인했다. 그는 이날 경기 MVP에 선정됐다. 데뷔전을 치른 대어급 신인 송혜수는 빼어난 몸놀림과 승부근성을 선보이며 4골을 기록, 합격점을 받았다. 오세일 감독은 "기량 있는 송혜수가 처음에는 긴장하긴 했지만, 코트에서 재물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인천과 승부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에 4골차까지 앞섰으나 27분께 23-23까지 추격당했다.

하지만, 후반전에 체력이 달려 번번이 무너지던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뒷심을 선보였다. 주전 원선필(Pivot·피봇, 상대 수비를 파고들어 공격루트를 여는 역할)이 파울로 2분 퇴장을 3차례 받아 후반전에서 뛰지 못했음에도 선수들은 이를 메우면서 승리를 챙겼다. 김지혜는 팀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는 후반 29분20초에 절묘한 백슛으로 상대의 골망을 갈라 24-23으로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세웠다. 상대의 치열한 수비 때문에 골문 공략이 봉쇄되자 몸을 돌려 골키퍼에게 등을 보이는 역동적으로 골문을 겨냥, 득점에 성공했다. 강경민은 후반 29분57초에 자신의 12번째 골을 넣으며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오세일 감독은 "개막전이라 선수들이 다소 긴장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면서도 "후반에 원선필이 뛰지 못했음에도 선수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일궈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6일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인천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경기. 광주도시공사 송혜수(가운데)가 인천시청 신다래 파울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신인 대거 기용 페퍼스... '양날의 검'이 되다

박은서·박사랑·서채원 등 젊은 피로 코트 채우며 배수진 깜짝 화력에 상대 팀 한때 당황 경험 부족으로 도로공사에 0-3 패

경험 부족과 고된 일정, 잦은 부상으로 '15연패' 늪에 빠진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배수진을 쳤다. 지난 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로공사전에서 AI페퍼스는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서채원과 박사랑, 박은서, 리베로 김세연까지 코트를 신인들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동안 AI페퍼스는 이한비와 엘리자벳, 박경현, 하혜진, 최가은, 이현으로 '베스트6'를 구성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주전 선수들이 부상과 체력 부족으로 전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한비는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으로 하루 두 끼 죽만 먹고 경기를 뛰고 있어 2세트 이상 필 체력이 없다. 엘리자벳은 지난달 무릎 통증을 겪은 이후로 기복이 심해졌다. 현대건설전에서는 2득점(공격 성공률 16.67%)만 기록하고 일찍이 교체됐으나, 흥국생명전에서는 29득점(50.94%)을 폭발했다. 인삼공사전 8득점(28.57%), 도로공사전에서는 16득점(50%)으로 성적이 날뛰기를 하고 있다. 하혜진과 최가은은 29일-5일 번갈아 발목 통증으로 한 번씩 출전을 못했고, 구슬이 허리 통증으로 경기를 빠지기도 했다. 주전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선택지가 없어지자 AI페퍼스는 신인들로 코트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신인들이 좋은 변수로 작용한 경우도 있다. 박은서의 깜짝 화력은 엘리자벳 대비에만 만전을 기했던 상대 팀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25일 흥국생명전에서는 18득점(60.71%)을 쏟아내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AI페퍼스 박사랑(왼쪽)과 엘리자벳이 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로공사전에서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KOVO 제공>

박사랑도 녹슬지 않은 정확한 세트와 '장신 세트' 장점을 심분 활용한 높은 볼로 공격수가 때리기 좋은 볼을 만들고 있다. '대우여고 트리오'였던 서채원은 물론 하혜진과의 속공 플레이도 호흡이 잘 맞는다. 부족한 경험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박은서는 아직 수비 반응이 빠르지 않다. 도로공사전에서는 박정아의 목격타 서브에 2연속 서브 에이스를 내주기도 했다. 지금까지 박은서의 세트당 수비 기록(디그 성공 횟수+리시브 성공 횟수-리시브 실패 횟수÷세트 수)은 2.24회다. 세트당 수비 5.33회를 기록하고 리시브 32.19%·디그 18.54%를 책임지고 있는 이한비를 완벽히 대체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사랑은 다소 성급한 세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건설전에서는 서채원과 속공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사인이 잘 안 맞았는지 서채원이 볼을 늦게 때려 힘이 빠졌다. 공격수가 박사랑의 세트에 다소 늦게 반응해 공격이 블로킹에 막히거나, 네트에 꽂히는 상황도 반복됐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도 "박사랑이 아직 고등학교 스타일의 토스를 하고 있다. 마음이 급해 볼을 너무 높은 곳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속도와 강약 조절을 익혀야 한다. 천천히, 안정성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새로 시작하는 선수들과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포메이션에 대한 정착이 안 됐다. 어떤 포지션으로 시작해야 가장 이상적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변화가 자주 생길 것이다. 선수들도 그 변화를 따라야 할 테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궁 3관왕' 안산 세계랭킹 1위 등극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광주여대)이 2021년 연말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6일 세계양궁연맹(WA)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치러진 모든 대회 성적이 반영된 연말 랭킹에서 안산은 리커브 여자 개인전 1위에 등극했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 이어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따낸 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랭킹이 동결되기 전인 2020년 4월보다 랭킹을 4계단 끌어올려 1위에 올랐다.

이밖에 강채영(현대모비스)이 8위, 장민희(인천대)가 16위에 자리했다. 리커브 남자 개인전 랭킹에서는 브래디 엘리슨(미국)이 1위, 도쿄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메테 가조트(터키)가 2위에 자리한 가운데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가장 높은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리커브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 랭킹에서는 1위에 자리했고, 여자 단체전 랭킹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힘 못 쓴 손흥민...토트넘, 첼시에 0-2 패

리그컵 결승 진출 빨간불

손흥민(30)이 선발 출전했으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토트넘은 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치른 2021-2022 리그컵 준결승 1차전 원정경기에서 0-2로 완패했다. 이로써 지난 시즌 대회 준우승팀 토트넘은 13일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2차전

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8골 3도움을 포함해 공격선 9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79분을 뛰었으나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한 차례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은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달성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날 경기는 런던을 연고로 한 팀 간 맞대결일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2016-2017 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첼시를 이끌었던 터라 '콘테 데비'로도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

쿠드롱, 프로당구 PBA 최초 4회 우승

'세계 최강' 프레데리크 쿠드롱(54·벨기에·사진)이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프로당구(PB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쿠드롱은 5일 밤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조재호(42)를 세트스코어 4-1(15-6 15-3 11-15 15-1 15-12)로 꺾었다. 쿠드롱은 두 대회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PBA에서 가장 많은 4회 우승을 달성한 주인공이 됐다. 쿠드롱 외 다승자는 나란히 2회 우승의

강동국, 다비드 마르티네스뿐이다. 우승한 쿠드롱은 상금 1억원과 랭킹포인트 10만점을 획득, 시즌 상금랭킹 1위(2억650만원)로 올라섰다. 조재호는 준우승 상금 3400만원(랭킹포인트 5만점)을 받았다. 쿠드롱은 이번 결승전에서 PBA 결승전 최고 에버리지인 3.550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위엄을 과시했다. 쿠드롱은 '월별톱랭킹 토포에버리지 상'도 수상, 상금 400만원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경관의 피
-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씽2게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해피 뉴 이어
- 6관 경관의 피
- 9관 경관의 피, 해피 뉴 이어
- 7관 씨네캐슬 경관의 피
- 8관 씨네캐슬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1.04.(화)~ 29.(토)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2, 8379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2022. 01. 14.(금)
장소: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062-524-5086

즐거움
문화산책